

19세기 斗陵 유람 시첩, 『斗江勝遊帖』

김 지 영*

< 目 次 >

I. 머리말	1. 유람의 전체 여정
II. 자료 개관	2. 유람시의 내용
1. 유람의 주체와 경위	1) 두릉의 樓亭과 勝景 묘사
2. 이견필의 「두강승유도」	2) 出仕의 좌절과 隱居 지향
III. 유람의 여정과 유람시의 내용	IV.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19세기 문인 洪錫謨, 朴鍾儒, 吳泰雲, 洪宣謨가 斗陵을 유람하고 남긴 시첩인 『斗江勝遊帖』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살핀 논문이다.

이 시첩에는 1845년 이들이 두릉을 유람하고 쓴 유람시 15제 55수와 두릉 유람의 정경을 그린 李建弼의 「두강승유도」 2점이 함께 장첩되어 있다. 유람에 참여한 네 사람은 모두 少論으로 당색이 같으며 일찍부터 교유가 있었다. 두릉은 박종유의 거처가 있던 곳이었고, 당시 문인들이 敬慕했던 丁若鏞·徐有榘와 같은 선배 문인들이 자리 잡았던 곳이기에 자연스레 유람지로 선택되었던 듯하다. 문인서화가 이견필이 두릉의 鈔鑪潭과 松亭을 유람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남겨 이들의 유람시에 덧붙였는데, 19세기에 유행했던 南宗文人畫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두릉의 實景을 소박한 필치로 담고 있다.

유람시에는 당시 두릉의 승경지로 손꼽혔던 여러 지역이 묘사되어 있다. 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elikusa@aks.ac.kr

약용 가문에 이어 박종유 가문이 소유했던 송정, 사라담 앞에 있던 練帶亭, 德水李氏의 田莊이 있었던 石林, 申翊聖의 東淮 別墅가 있던 白雲樓 터 등이 그 예이다. 네 사람은 풍광이 아름다운 두릉에서의 은거를 노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다 이룬 출사의 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해 두릉이 뱃길로 도성에 쉽게 닿을 수 있었던 근교지로서 은둔과 출사를 동시에 꿈꿨던 당시의 문인들에게 각광 받았던 지역이었음을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斗陵, 斗江勝遊帖, 19세기, 遊覽, 홍석모, 박종유, 이견필

I. 머리말

『斗江勝遊帖』¹⁾은 1845년 陶厓 洪錫謨(1781~1857), 匡山 朴鍾儒(1789~1848), 竹樵 吳泰雲(1790~1865), 玉壺 洪宣謨 네 사람이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斗陵, 즉 지금의 두물머리 근처의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를 유람하며 쓴 시를 모은 詩帖이다. 여기에는 유람의 정경을 그린 李建弼(1820~1873)의 「斗江勝遊圖」 2점이 함께 粧帖되어 있다.

유람시의 배경이 되는 두릉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길목에 자리해 수상 교통의 요지이자 산수의 풍광이 수려한 遊賞地였다. 배편으로 도성에서 쉽게 오갈 수 있어 많은 문인, 시인 묵객들이 두릉을 유람하며 작품을 남겼고, 17세기 무렵부터는 이곳에 先塋을 조성하고 別墅를 둔 가문도 많았다. 특히 19세기에는 經學과 文詞로 당대 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茶山 丁若鏞, 楓石 徐有榘의 거처가 두릉에 있어 文星이 모인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후배 문인들이 이곳을 찾았다.²⁾

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하 『두강승유첩』 관련 사진은 실학박물관에서 제공한 것임을 밝혀둔다. 『두강승유첩』이라는 명칭은 기증자가 붙인 것으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두강승유첩』이라 칭한다.

『두강승유첩』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19세기 문인들의 유람과 시회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예이자, 앞서 언급한 바 두릉 지역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또한 지역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람시와 함께 유람시의 정경을 그린 그림이 남아 있어 두릉의 옛 모습을 가늠하고 현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하 2장에서는 『두강승유첩』의 실물 자료를 소개하고, 유람시와 「두강승유도」를 나누어 개관한다. 3장에서는 유람의 여정 전반을 정리하고 네 사람이 지은 두릉 유람시의 특징을 살펴본다. 시를 살핌으로써 19세기 두릉 지역에 있던 누정과 별서를 이해하는 한편, 두릉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두강승유첩』의 자료적 가치를 발견하고 19세기 두릉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자료 개관



그림 1. 『두강승유첩』 1, 924×2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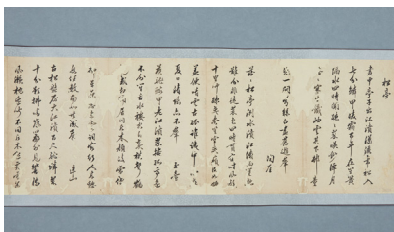


그림 2. 『두강승유첩』 2, 602×26.4cm

『斗江勝遊帖』은 총 2개의 詩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시축에는 『大東輿地圖』에서 두릉을 중심으로 漢陽 및 경기의 廣州와 楊根 부분을 摹寫한 지도, 유람의 정경을 그린 그림 1점, 유람시 10題 35首가 실려

- 2) 두릉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지영, 「조선 후기 斗陵 일대에 대한 공간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2017)에서 밝혔다.

있고, 두 번째 시축에는 유람의 정경을 그린 또 다른 그림 1점과 유람시 5제 20수가 실려 있다. 현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실학박물관에서 『두강승유첩』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통해 실물을 알렸고, 시축에 포함된 두 점의 그림은 「斗江勝遊圖」로 소개했다.

실물 자료에는 절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본래 첩으로 묶여 전하던 그림과 시에 후대의 소장자가 『대동여지도』 모사본을 추가로 넣어 족자 형태로 새로 배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림과 시가 실린 본래의 시첩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각 시첩의 앞부분에 실린 두 점의 「두강승유도」는 19세기 중후반기의 문인서화가인 李建弼의 작품으로 그의 이름과 인장이 남아 있다. 그림에 이어지는 유람시는 行草로 필사되어 있는데, 글씨에도 능했다고 전하는 이견필이 유람시를 필사하고 여기에 덧붙여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는 각 시제에 따라 陶厓, 竹樵, 匡山, 玉壺 네 사람이 詩韻을 정하고 돌아가며 疊韻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아래에서 시와 그림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유람의 주체와 경위

네 명의 유람자는 누구이고, 왜 두릉 유람을 떠났을까? 유람의 경위를 살필 수 있는 序跋文은 남아있지 않지만, 다행히 이 모임의 좌장격인 洪錫謨의 문집 『陶厓詩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이때 지은 시가 실려 있어 유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考究할 수 있다.

홍석모는 조선 후기 경화세족으로 번성을 누렸던 豐山洪氏 가문의 일원으로 耳溪 洪良浩의 손자이다. 어린 시절 조부 밑에서 수학하였고, 1804년 사마시에 합격해 과천현감, 황간현감, 남원부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관직에는 크게 뜻을 두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며 일생을 유유자적하게 보냈다.³⁾

3) 홍석모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관성, 「도에 홍석모 문학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

그의 『도애시집』은 편년체로 작품이 편차되어 있다. 『두강승유첩』에 실린 유람시는 1845년의 작품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데, 문집에는 이때의 유람과 관련된 작품들이 「단오 다음날 匡山 朴季林, 竹樵 吳澍卿, 아우인 玉壺 聖三과 함께 배를 타고 두릉을 유람했는데, 麤島[쪽섬]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가며 배에서 연구를 지었다」⁴⁾라는 시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들의 두릉 유람이 1845년 5월의 일이며, 함께 두릉을 유람했던 나머지 세 사람이 광산 박계림, 죽초 오주경, 옥호 홍성삼임을 알 수 있다.

광산 박계림은 朴鍾儒로 계림은 그의 자, 광산은 호이다. 從曾祖인 朴文秀 대부터 두릉에 있던 松亭이 그 집안의 소유였으며, 경기도 광주 社村에 거처하며 정약용과 교유했던 石泉 申緯이 그의 외숙부로 박종유는 일찍부터 신작을 따라 茶山家 문인들과 교유했다. 1823년(순조 23) 여름에는 박종유 본인이 두릉에 아예 자리를 잡고,⁵⁾ 자신의 집에 烟波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정약용의 장남인 丁學淵, 金長生의 8대손인 金在崑 등과 斗陵詩社라는 이 지역 문인들 간의 시회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그의 재실인 연파관은 두릉시사의 주요 모임 장소 중 하나였다.⁶⁾

죽초 오주경은 吳道一의 현손인 吳泰雲으로 주경은 그의 자, 죽초는 그의 호이다. 1825년(순조 25)에 진사가 되었고, 음보로 벼슬이 楊根郡守에 이르렀다.⁷⁾ 홍석모와는 부친인 吳彦誼가 1831년 菊社라는 시사를 결성하여 만년까지 가까이 지냈고, 이후에도 대대로 세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위논문, 2017)에 자세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 본 자료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유람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4) 홍석모, 『陶厓詩集』 권18, 「端陽翌日 與匡山朴季林·竹樵吳澍卿·玉壺弟聖三舟上斗陵之遊 自麤島就水路 舟中聯句」.

5) 신작, 『石泉遺集』 後集 권8, 「日乘」. “時朴甥自木洞新移菖川, 丁令又在隣比, 故往尋焉.”

6) 김지영, 『정학연 시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p.32-34.

7) 『해주오씨 대동보』 권6, 해주오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1991, pp.38-39.

8) 국사를 결성하며 지은 시에 오언의의 이름이 보이고, 1841년 오언의가 사망하자 애도시를 지어 그를 추억하기도 했다. (홍석모, 『도애시집』 권12, 「菊社詩」; 『도애시집』 권16, 「松澗吳丈哀詩」)

홍석모가 ‘아우[弟]’라고 한 聖三은 중형제인 洪宣謨를 가리킨다. 홍선모는 자가 성삼, 호는 옥호로 홍석모와 마찬가지로 洪履祥의 후예이다. 같은 풍산홍씨 집안이었지만 홍선모의 집안은 쇠락하여 70세에 이르도록 포의로 지냈으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제천의 의림지 서편에 옥호산장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은거하였다.⁹⁾ 1850년 3월 陳慰進香使의 부사였던 洪羲錫을 따라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燕行을 다녀왔다.¹⁰⁾ 李學逵, 崔琳의 문집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¹¹⁾ 홍석모의 문집에 그와 수창한 시가 다수 전한다.

홍석모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당색이 少論이다. 이때의 모임은 당색과 혈연, 세교로 얽힌 벗들이 승경을 유람하며 자연스럽게 결속을 다진 시회였다. 홍석모의 문집을 보면, 네 사람의 두릉 유람은 다소 즉흥적이었다. 이들은 본래 지금의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던 牧馬場 쪽에서 만나 독섬 일대에서 뱃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함께 뱃길 유람을 하는 흥취에 젖어, 또 한편으로는 이별하기가 아쉬워서 갑작스레 두릉 행을 결정했다.¹²⁾ 여기에는 두릉이 한강 물길을 따라 도성에서 오가기 쉽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홍석모의 경우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806년 3월에도 두릉 유역을 유람하고 「斗陵雜詠」을 지었는데, 이 시의

9) 柳疇睦의 「送玉壺洪丈序」(『溪堂集』 권8)를 통해 옥호가 홍선모이며 홍이상의 후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홍석모와는 중형제간인 듯한데, 족보에 이름이 보이지 않아 재고가 필요하다. 2017년 5월 제24회 마아트옥션 경매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다산이 쓴 「送洪逸人歸玉壺山莊詩并序」가 있는데, 이 시와 병서를 통해 홍선모가 제천에 옥호산장을 꾸렸으며 이를 통해 옥호라는 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홍한주, 『海翁詩藁』 권5, 「送玉壺叔入燕」.

11) 이학규, 『洛下生集』, 「隄上洪生宣謨 乞余一詩 輒賦以贈」; 최림, 『畏窩集』 권1, 「用前韻贈洪玉壺子」.

12) 홍석모, 『도애시집』 권18, 「端陽翌日 與匡山朴季林竹樵吳澍卿玉壺弟聖三 舟上斗陵之遊 自蘓島就水路 舟中聯句」. “江天五月雨新晴, 牧馬場頭信馬行. 隱暎樓臺垂柳岸, 匡羅峯嶂衆香城. 華菴少憩仙肩拍, 蘓島平浮水面生. 此地逢迎難忍別, 同舟興趣忽經營. …(후략)…”

병서에서 복거할 뜻을 보일 정도로 두릉의 풍광을 아꼈다.¹³⁾ 박종유의 연과관이 이곳에 있었다는 점도 이들이 두릉으로 향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홍석모의 『도애시집』에는 네 사람이 이때 박종유의 연과관을 찾아갔음이 확인된다.¹⁴⁾

그러나 두릉이 뱃길 유람이 용이하고 경관이 아름다우며 벗의 거처가 있는 곳이었기에 유람지로 선택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도애시집』을 보면 실제로는 한양의 뚝섬 지역을 떠나면서부터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전체의 여정인데, 『두강승유첩』은 이 중에서 두릉에서 쓴 시들만을 모아 따로 필사하여 장첩했다. 이는 두릉 지역이 그만큼 이들의 인식 속에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말한다.

홍석모, 「菴上留題[초계 가에서 짓다]」 제1수¹⁵⁾

林如濠濮水湘庭	숲은 濠濮 같고 물은 湘水 같은데
嵐翠天教作障屏	푸른 이내가 하늘에 장막을 만드네.
五月仙家聞打麥	5월 선가에선 보리타작 소리 들리는데
百年交契合浮萍	백 년 교분 맺은 우리 부평초와 같구려.
茶山事業遺珍笈	茶山の 사업은 진귀한 장서로 남았고
楓石詞翰老研經	楓石의 문장은 경학 연구로 노성하였네.
斗渚如今江左地	두릉 물가는 지금도 江左의 땅과 같으니
時人爭道聚文星	사람들은 文星이 모였다고 다투어 말한다오.

홍석모가 쓴 위의 시에서 두릉은 장자가 노닐었던 濠梁과 濮水, 굴원이 빠져죽은 湘水가에 비유되었다. 이는 두릉을 無爲自然의 한적함을 지닌 곳이자 憂國表情을 지닌 지사들의 은일처로 묘사한 것이다. 실제 19세기

13) 홍석모, 『도애시집』 권4, 「斗陵雜詠」. “余於今春遊其間, 大有卜隣之志, 遂列爲雜詠, 欲其諷吟諷誦, 戀戀不忘也.”

14) 홍석모, 『도애시집』 권18, 「斗渚烟波之觀」.

15) 『斗江勝遊帖』. 이하 『두강승유첩』에 수록된 시는 작자와 시제만 본문에 표기한다.

세도정치 아래에서 많은 俊才들이 중앙 정치에 편입되지 못하고 近畿 지역에서 은거하였다. 근기 지역 중에서도 두릉은 18세기~19세기 문단의 거목이었던 丁若鏞과 徐有榘가 거처했던 지역이기에 후대 문인들에게 의미가 더욱 컸다. 이들은 이전 시기 이곳에 자리했던 文星들을 떠올리며 두릉을 찾아 유람을 즐긴 것이다. 『두강승유첩』은 이 시기 두릉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¹⁶⁾

2. 이견필의 「두강승유도」

이 시첩에는 이견필이 그린 「두강승유도」 2점이 함께 전한다. 19세기 문신이자 서화가인 이견필은 자가 右卿, 호는 石帆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정종의 제10남인 德泉君 李厚生의 후손이자 李景稷의 7대손이다. 1846년(현종 12) 진사시, 184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평안도 청북 암행어사, 제주목 안핵사겸찰리사, 의주부윤, 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림과 글씨에 뛰어났는데 安邊 釋王寺와 妙香山 극락전에 그가 쓴 편액이 있으며, 그가 그린 「삿갓을 쓴 자기 강위의 초상(姜慈妃戴笠所像)」에 秋史 金正禧가 畫題詩를 지어 소동과 그림에 비견하며 칭찬하기도 했다.¹⁷⁾ 여기에서 이견필과 김정희가 교유가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두강승유도」는 전형적인 남종화풍의 산수도이다. 19세기에는 김정희와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남종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김정희

16) 이 시기 申弼永(1830~1865)의 「測上紀行絕句一百首」, 尹濟奎(1810~1879)의 「下江卷」 등에서도 강을 따라 유람하며 두릉을 주요한 유람지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정약용과 서유구를 떠올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지영, 앞의 논문(2017)에 자세히 다룬다.

17) 김지연 외,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563. 이견필에 대해서는 이 책과 『한국회화대관』, 『근역서화징』 외에 참고할 만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상의 서적들에는 이견필의 출생년도가 1830년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 이후 오류가 답습되었다. 『전주이씨 덕천군파보』(전주이씨 덕천군파종회, 2003)를 통해 출생년도를 바로 잡는다.

는 실제의 모습을 모방하는 形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슴 속의 이상과 의지를 반영한 寫意的 회화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近景에 성근 나무숲과 인적이 보이지 않는 고즈넉한 정자, 中景에 강물이나 호수, 遠景에 먼 산을 배치하는 방식의 산수화를 그린 元나라 화가 倪瓚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¹⁸⁾ 「두강승유도」도 이러한 구도를 따라 치밀한 묘사에 뜻을 두지 않고 간략한 묵법으로 이상화된 유람의 정경을 담았다.

그러나 「두강승유도」를 시의 내용이나 현재 두릉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견필이 남종화의 기본적인 구도를 따르면서도 두릉의 실경을 화폭에 옮기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사라담에서 노닐며 흥석모가지은 시의 수 함련이다.

흥석모, 「拏小舟 至鈔鑼潭北壁下 沿澗少頃[작은 배를 타고 사라담 북벽 아래 이르러 잠시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다], 제1수

鈔鑼潭上出孤峰	鈔鑼潭 위로 외론 봉우리 솟았는데,
北壁嶽峨似石鐘	깎아지른 듯한 북쪽 벼랑이 마치 石鐘 같네.
藍嶼斜分水頭兩	藍子洲에서 양편 물길이 비껴 나뉘고,
祗林遙指翠微重	질간은 침첩 푸른 산 속에 멀리 보이네.

사라담은 藍子洲(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죽자섬) 앞에 있던 못 이름으로 두릉에 이른 문인들은 자주 이곳에서 뱃놀이할 하곤 하였다. 첫 번째 그림(그림 3) 속 원편



그림 3. 「두강승유도」 1, 종이에 수묵, 33.5×23.5cm

18) 김상엽, 『소치 허련』, 돌베개, 2008, pp.45-52.

근경에는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절벽이 보인다. 이는 시에서 읊은 바, 사라담 북쪽에 있었다는 벼랑인 듯하다. 원경을 보면 남자주로 추정되는 왼쪽 위편의 섬 뒤로 물길의 좌우 두 갈래로 나뉘고, 그 뒤편으로 첩첩 이어지는 산봉우리가 시에서 말한 정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절은 雲吉山의 水鍾寺를 가리키는 듯한데,¹⁹⁾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림(그림 4)에서는 남종화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그림에는 안개 낀 물가의 정경이 담겨있다. 근경에는 바위 가에 우뚝하게 자란 푸른 古松 몇 그루를, 중경에는 열은 먹으로 안개에 싸인 강



그림 4. 「두강승유도」 2, 종이에 수묵, 33.3×23.5cm

가에 떠 있는 두 척 배와 흐릿한 언덕을, 원경으로 높은 산봉우리들을 그렸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빛을 간직하고 있어 선비 정신의 상징물로써 자주 문인화의 소재로 쓰였다. 솔숲을 찾아가는 강물 위의 작은 두 배를 그려 고아한 선비들의 유람을 표현하였다. 이는 김정희가 말한 ‘寫意’의 소재로 소나무를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그림에 이어 처음 필사되어있는 시는 「松亭」인데, 그림 속에 정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솔숲으로 향하는 두 배의 모습에서 송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그림을 지금의 실경과 비교하면, 팔당댐 건설로 수위가 높아져 그 면모가 달라지기는 했으나 「두강승유도」 1은 지금의 마재에서 북편의 양수리 쪽을 바라본 경치를, 「두강승유도」 2는 반대로 소내섬 쪽을 바라

19) 정약용이 뱃길로 춘천을 유람하며 남긴 「汕行日記」(『與猶堂全書』 권22)에 ‘사라담에서 수종사를 바라보다.(沙羅潭望水鍾寺)’를 그림으로 그려줄 만한 절경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본 경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능내리 마재마을에서 양편을 바라보았을 때 산세나 물길의 전반적인 모습이 두 그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두강승유도」는 이상과 실경이 결합된 19세기 문인 산수화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건필이 유람시를 지은 네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때 유람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림에 실경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시와 그림의 분위기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람에 동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람에 참여했을 지라도 여율이 험한 두릉의 특성상 배에 탔던 당시보다는 이후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유람 이후 그림을 그리고 네 사람의 시를 필사하여 시첩을 엮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유람의 여정과 유람시의 내용

1. 유람의 전체 여정

『두강승유첩』의 시는 여정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으나 『도애시집』을 참고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도애시집』과 『두강승유첩』의 작품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시제 앞에 매긴 숫자는 각각의 시첩에 실려 있는 순서이다.

『도애시집』 권18	『두강승유첩』 1	『두강승유첩』 2
端陽翌日 與匡山朴季林竹樵吳澍卿玉 壺弟聖三 舟上斗陵之遊 自蘼島就水路 舟中聯句		

20) 2017년 실학박물관의 ‘한강, 예술을 만나다’라는 기획 전시에서 「두강승유도」 2점을 능내리 3-2번지에서 북쪽과 남쪽을 바라본 풍경으로 비정하고 그림과 현장 사진을 비교 전시한 바 있다.

『도애시집』 권18	『두강승유첩』 1	『두강승유첩』 2
江行書事十絶		
度迷 <small>斗尾古號</small>		
斗渚烟波之觀 <small>季林軒名</small>		
朱櫻		
黃麥		
黃嶽僧戒彦能畫		2. 觀黃嶽僧戒彦畫
朝靄		3. 朝靄
松亭		1. 松亭
挈小舟 至鈔鑼潭北壁下 沿洄少頃	1. 挈小舟 至鈔鑼潭北壁下 沿洄少頃	
練帶亭	2. 練帶亭	
斗江勝會	3. 斗江勝會	5. 拈杜共賦
雨	4. 朝雨	
聞鶯		4. 聞鶯
帶月還斗陵	5. 自石林帶月 還斗陵	
白雲樓舊基自怡菴	6. 白雲樓舊基自怡菴	
苕上雜詠	7. 苕上留題	
竹樵先向八塘 翌朝借舟到泊 竹樵與主人李友偕之 船中亦一奇事 仍步竹樵韻	8. 竹樵借轡 先向八塘 翌日船路相會	
與竹樵回舟聯句 沒韻江字三十一韻	9. 回舟聯句 沒江韻	
携南城風樂泛月 蠶湖轉上映波亭	10. 十三日夜蠶湖泛月	

네 사람의 유람은 단오 이튿날 蠶島를 출발하여 7일을 한강 물길을 따라 두릉을 유람하고 5월 13일에 다시 독도로 돌아와 시를 읊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주요 유람지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독도(前串)→度迷(斗迷)→[烟波觀→松亭→鈔鑼潭→練帶亭→石林→自怡菴(白雲樓 터)→苕溪]→八塘→독도이다. 두릉 여정을 『두강승유첩』에 실린 고지도(『대동여지도』 모사본)와 현대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 5, 6과 같다.



그림 5. 『두강승유첩』 지도에 표시한 여정



그림 6. 현대 지도에 표시한 여정

독도는 지금의 성수동, 자양동, 구의동 일대에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지역인 뚝섬 일대를 가리키는데, 조선 태조 때부터 임금이 사냥을 하고 무예를 검열했던 곳으로 임금의 행차 때마다 纛旗를 세웠다. 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모양이 섬과 같다 하여 독도라고 하였다.²¹⁾ 『두강승유첩』의 지도에는 前串이라고 써있다. 네 사람은 이곳을 출발해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두미를 지났다. 두미는 지금의 하남시 검단산과 남양주시 예봉산 사이의 좁은 협곡 지대를 가리킨다. 이어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인 두릉에 이르러 곳곳을 유람했다. 그림5에 두릉은 ‘麻岫’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곳은 마재라는 지명으로 불린다. 위에 제시한 전체 여정에서 []로 묶은 연파관송정·사라담·연대정 등이 모두 두릉에 있었다. 석림은 강 건너편인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이석리 석림동을 말한다. 자이암(백운루 터)은 물길을 따라 좀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 二水(지금의 두물머리)와 마주한 高浪津, 지금의 조안면 조안리에 있었다. 그림 5에는 高良津으로 표시되어 있다. 초계는 두릉 앞 물가인 소내의 별칭인데, 그림5에는 牛川이라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갈대가 우거진 얇은 개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팔당호로 막혀 수위가 높다. 넓게는 이들 지역까지도 두릉의 범주에 포함된다.

2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

독도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네 사람이 함께 하였는데, 석림을 유람하고 강을 건너 두릉 쪽으로 돌아온 뒤 홍선모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고, 사이암을 구경한 뒤 한양으로 향하면서는 박종유와도 작별한 것으로 보인다.²²⁾ 이후 홍석모는 말을 빌려 먼저 팔당으로 떠났던 오태운과 잠시 헤어졌다가 팔당 뱃길에서 다시 만나 함께 독도로 올라왔다.

2. 유람시의 내용

1) 두릉의 樓亭과 勝景 묘사

네 사람의 시를 통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19세기 두릉 일대의 주요 누정과 별서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송정, 연대정, 석림, 백운루 터 등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先人들의 자취가 남아있어 당시 두릉을 유람한 이들이 주로 찾던 승경지였다.

송정은 본래 臨淸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자였다. 정약용의 선조인 丁時潤이 마재로 입향하면서 집 앞 시내인 菴溪 근처에 이 정자를 지었다. 정자 앞에는 怪松을 많이 심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였다고 전한다. 정시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초계를 유람하던 박문수가 이곳을 보고 정시윤의 후손에게서 정자를 사들여 송정이라 이름했다.²³⁾

박종유, 「松亭[송정]」 제3수

蒼龍鱗甲老江濱	비늘 푸른 창룡이 강가에서 늙어 가니
翠掩孤亭遠不分	비취빛 들린 외론 정자가 멀리 흐릿하네.
笙舌水樓空自奏	물가 누대의 생황은 그저 절로 연주되고
棋聲鶴觀或初聞	백학관의 바둑 소리 또한 비로소 들리누나.

22) 홍선모의 시는 「自石林帶月 還斗陵」을 끝으로, 박종유의 시는 「菴上留題」를 끝으로 보이지 않는다.

23) 자세한 내용은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14, 「臨淸亭記」에 자세히 다.

居同凡木顏凌雪	못 나무들과 함께 있지만 그 빛같은 눈을 이기고
低抑平原意在雲	평원에 나직이 있어도 마음은 구름에 두었네.
詞客行人來憩息	시객과 행인들 와서 쉬게 하니
任教南北共成羣	남북에서 온 이들이 모여 무리 이룬다오.

홍석모 일행이 유람을 왔을 때도 이곳에서 10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송을 볼 수 있었다. 물가 정자에서 뱃전으로 들려오는 솔바람 소리에 화자는 宋代의 道觀인 白鶴觀을 떠올렸다. 이는 蘇軾이 廬山の 백학관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낮잠에 빠져 있는데, 시냇가의 老松 숲에서 바둑 두는 소리만 들렸다는 고사를 취한 것이다.²⁴⁾ 이를 통해 송정은 仙界와 같은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눈서리를 이겨내고 하늘로 뻗은 고송의 군센 의기를 읊어 자신들의 고아한 정신세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오테운도 위의 시를 이어 지었는데, 말구 두 구에서 “100년 동안 文名 전하는 두릉 집에는, 뜰 가득 오동과 대가 무성하구나.(文藻百年斗陵宅, 滿庭梧竹已成羣)”라고 하였다. 이는 송정이 함께 유람중인 박종유 집안의 소유임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시기 박종유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형인 朴鍾林과 아들 朴永輔는 19세기 문단을 이끌었던 秋史 그룹, 茶山 그룹의 문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문명을 떨쳤다.²⁵⁾ 이에 송정의 주인이었던 박문수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때까지 두릉에 고령 박씨의 자손이 남아 문명을 떨치고 있다고 한 것이다.²⁶⁾

24) 소식, 『東坡後集』 권6, 「觀棋」序. “予素不解棋, 嘗獨游廬山白鶴觀, 觀中人皆關戶晝寢, 獨聞棋聲于古松流水之間. 意欣然喜之, 自爾欲學.”

25) 박종림·박종유 형제는 정약용과 교류가 있었고, 정학연과는 지역 문인 사회인 두릉시사를 만들었다. 박종림의 아들 박영보는 자하 신위의 제자로 추사 그룹, 다산 그룹 및 초의와도 교류가 있었다.

26) 이의 두릉에 거처했던 정약용도 송정을 아꼈다. 그는 송정이 본래 자신 가문이 소유였음을 「임정정기」에 밝히고, 초계의 뛰어난 경관 중 하나로 「송정에서의 활쏘기(松亭射帳)」를 꼽았다.(정약용, 『여유당전서』 권1, 「菴川四時詞 效張南湖賞心樂」 제13수 「松亭射帳」. “雲晴碧檜壇上, 日熙黃莎岸邊. 銅鼎燒來臠肉, 角弓聽取鳴弦.”)

연대정 또한 마재 앞 물가에 있던 정자로 정약용이 ‘작은 봉래[小蓬萊]’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다웠던 곳이다. 홍현주가 정약용가를 방문했다가 그의 자제들과 함께 이곳에 올라 시를 짓기도 했고,²⁷⁾ 마재의 강 건너편인 歸川(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거주했던 金允植 또한 연대정 앞에 배를 띄우고 달구경을 하며 시를 지은 일이 있다.²⁸⁾

오태운, 「練帶亭[연대정]」 제2수

練帶孤亭北壁西	北壁의 서쪽에 외로이 선 練帶亭
江聲喚起醉魂迷	강물 소리가 취해 혼미한 정신을 깨우네.
沙連草色橫藍島	풀빛 이어진 모래톱이 藍子洲에 비껴 있고
帆背斜陽上月溪	석양을 등진 배는 月溪에 떠 있네.
野客頻來林鶴放	野客이 자주 오니 산골의 학 날아오르고
漁人欲去水禽啼	어부 떠나려 하니 물새가 우는구나.
杭州眉目應如此	杭州의 眉目이 분명 이와 같으리니
安得蘇黃手共携	어디서 蘇黃 만나 함께 노닐까.

연대정은 사구로 형성된 마재의 북서쪽에 있던 정자이다. 이 정자에서 동쪽으로 한강을 건너면 광주의 귀천이 있고, 북쪽으로 조금만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수인데 그 사이에 남자주가 있다. 또 이곳에서 남한강 쪽으로 나가는 물을 月溪 또는 月溪峽으로도 불렀다. 화자는 벗들과 함께 연대정에 올라 남자주와 월계의 풍광을 조망하였다. 풀빛이 이어 깔린 남자주의 모래사장과 석양녘 강물 위를 지나는 배, 날아오르는 학과 물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강 마을의 고즈넉한 저물녘 實景을 담박하

27)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6, 「海尉游練帶亭 余不能從 令小童傳韻賦詩」.

28) 김윤식, 『雲養集』 권1, 「既望汎舟詩集」. “芳洲料理木蘭舟, 練帶亭前碧玉流. 見月幾時兼有客, 傍山無處不宜樓. 魚遊共賞濠梁夕, 鱸膾空憐洛裏秋. 內翰清標如可想, 綽髻笑罵坐螭頭.”

게 묘사하여 미감을 얻고 있다. 오태운은 이 시에서 연대정을 ‘항주의 미목[杭州眉目]’에 견주었다. 항주의 미목은 소식이 浙江省 항주의 西湖를 항주의 미인 서시에 비유하여 쓴 표현이다.²⁹⁾ 서호와 같은 풍경은 눈앞에 있는데, 서호를 노래했던 소식과 같이 뛰어난 문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두릉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자신들을 곧 소식과 황정견에 견주어 자 한 뜻이 보인다.

다음으로 두릉의 강 건너편에 있던 석림을 다녀오며 배 위에서 지은 작품을 살펴본다.

홍석모, 『白石林 帶月還斗陵[석림에서 달빛을 받으며 두릉으로 돌아오다]』 제1수

草路携筇帶月回	풀길을 지팡이 짚고 달빛 받으며 돌아와
扁舟一葉大江隈	한 조각 작은 배를 큰 강가에 띄웠네.
夜光波拭虛明鏡	밤 달빛 받은 물결은 맑은 거울을 씻기고
隣醉風醒激滄杯	이웃서 취했다가 바람에 술기운 깨는구나.
遠岫孤雲如障出	먼 산의 외론 구름은 병풍에서 나오는 듯하고
澄沙翠樹向人來	맑은 모래톱 푸른 나무가 사람에게 다가오네.
村燈耿耿通遙照	마을 등불 또렷하여 멀리까지 비추는데
松下荊扉待我開 ³⁰⁾	소나무 아래 사립문 날 위해 열어두었구려.

석림의 정자에서 술 마시며 꽃구경 하고 다시 밤에 배를 띄워 돌아오는 길에 지은 작품이다. 이 시는 ‘船上’ 유람의 묘미를 잘 살려 지었다. 선상에서 짓는 시는 동선의 ‘이동’이 실경 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의 頷聯에는 늦은 밤 선상에서 바라본 밤 강물의 고요함, 頸聯에는 배를 타고 움직이며 본 경물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있다.

시에서는 돌아오는 길에 본 실경을 주로 읊었지만, 석림은 다른 문인들의

29) 소식, 『蘇文忠公全集』, 「乞開杭州西湖狀」. “杭州之有西湖, 如人之有眉目, 蓋不可廢也.”

30) 홍석모, 『白石林帶月 還斗陵』 제1수.

작품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주목된다. 석림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二石里에 있는 마을로 지금까지도 그 지명이 남아있다. 이석리는 본래 石湖洞과 石林洞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두 마을이 합쳐져 이석리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두릉에서는 소내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통해 쉽게 두 곳을 오갈 수 있었다. 18~19세기 석림에는 덕수 이씨의 전장이, 석호에는 평산 신씨의 전장이 있었다.³¹⁾ 이중 석림은 英祖 대에 이조판서를 지낸 李潭(1723~1775)의 별서였는데, 1800년(정조 24)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정약용이 숙부와 함께 이곳에서 노닐기도 했다.³²⁾ 19세기에는 이담의 후손인 李魯和가 이곳에서 은거하며 정약용·정학연 부자와 교류하였다.³³⁾ 석림의 정자 앞에는 네모진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연꽃이 특히 아름다워 정약용은 가을빛이 든 연꽃을 구경하고자 가을이 되면 해질녘에 자주 이곳을 찾았던 듯하다. 이곳에서의 연꽃 구경을 초계의 승경 중 하나로 꼽았고,³⁴⁾ 泉石이 아름다워 畿內에서 이름난 田莊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³⁵⁾

백운루 터도 두릉의 중요한 유람 공간 중 하나였다. 백운루는 17세기 선조의 부마였던 申翊聖이 지금의 남양주 조안면 조안리 일대에 조성한 별서에 있던 누정이다.³⁶⁾

31) 17세기 申硯의 증손 申汝拭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石湖亭을 두었는데, 19세기까지 남아있어 정약용의 손자인 정대무, 정대번, 김육의 후손 김윤식 등이 이곳에서 함께 노닐기도 했다. 석호정과 관련해서는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4(휴머니스트, 2006)에 자세히 다룬다.

32)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14, 「游石林記」. “石林者, 故吏曹判書李潭之別墅也. 網旣舉, 得魚頗多. 乘小舟由淮安水, 轉泊石林之下. 旣觀其池臺亭閣之妙, 出而坐澗邊艸亭之上, 欣然一飽.”

33) 이노화는 1820년 4월 두릉 지역 문인들이 함께 한 鄉射禮에 참여하였고, 강 건너 정약용가를 찾아가 함께 시를 수창하곤 하였다.(정약용, 『여유당전서』, 「江皋鄉射禮序」; 「石林李禮卿魯和 月夜來訪 次韻蘇東坡定慧院月夜步出」)

34)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 1, 「菖川四時詞效張南湖賞心樂事」, 「石林賞荷」. “澗與紅亭翠閣, 園中曲沼方塘. 要看菖蓆秋色, 宜趁楓林夕陽.”

35)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6, 「八卦峯詩題趙正言山亭額」. “石林泉石好, 畿內此名莊.”

오테운, 『白雲樓舊址自怡菴[백운루 옛 터에 있는 자이암에서 짓다]』 제3수

遠訪自怡境轉深	멀리 자이암을 찾아가니 지경 더욱 깊숙해
白雲遺址挹遙岑	백운루의 옛 터에 먼 산 빛 감도네.
斗陵林壑看依舊	두릉의 골짜기는 예전과 다름없고
沁水風流傳至今	심수원의 풍류도 지금까지 전하누나.
四壁圖書還小築	사방 벽에 도서 가득했던 곳은 도리어 작은 집 되었는데
一庭花竹尙芳陰	뜰 가득한 꽃과 대가 여전히 그늘 이루고 있네.
對君已覺清香襲	그대들 이미 맑은 향기에 젖은 줄 알았으니
出水新荷淨客心	물 위 새로 핀 연꽃이 이 나그네 마음도 맑혀주리.

신익성이 부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을 漢나라 때 공주의 전원이었던 沁水園에 비유했다. 신익성의 별서는 진귀한 서화와 장서가 가득했던 곳으로 신익성 당시에 李攀龍의 白雪樓에 비견될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문화 공간이었다.³⁷⁾ 신익성의 사후 가문이 쇠락하면서 백운루는 예전의 모습을 잃었고, 홍석모 일행이 유람을 왔던 19세기에는 그 터만 남겨져 있었다. 이들이 마주한 것은 꽃과 풀이 가득 자란 정원뿐이지만 여전히 연꽃의 향기가 자신들에게 스며들어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말구의 표현에서 선배 문인의 풍류와 고아한 정취를 기억하며 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읽힌다.

홍석모 일행은 두릉의 이름난 누정과 별서를 유람하고 이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시에서 두릉은 많은 이들이 쉬를 얻는 공간이며,

36) 신익성이 이수 유역에 별서를 조성하고 창연정, 백운루 등의 누정을 두었는데, 그간 위치가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여유당전서』 권7, 「穿牛紀行」 제6수의 원주에 “고랑나루 가에 동양위 신익성 공의 정자 터가 있다.(臯浪渡上, 有東陽尉申公翊聖水亭遺址)”라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그의 별서는 지금의 조안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이곳에는 ‘고랭이마을’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며, 『두강승유첩』의 지도에도 고랑진이 표시되어 있다.

37) 신익성의 동회 별서와 백운루에 대해서는 김은정, 「신익성의 동회 별서」(『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에 자세하다.

소식과 황정견 같은 뛰어난 시인이 노닐었던 서호에 비견될만한 곳이고, 옛 문인의 풍류가 남아 전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두릉은 이상화된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삶을 향유했던 인물들과 유람 당시에 바라본 실경을 담고 있어 두릉이라는 공간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

2) 出仕의 좌절과 隱居 지향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러 문인들이 소탈한 은거를 꿈꾸는 일은 산수 유람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네 사람의 두릉 유람시에서도 여타의 유람시와 마찬가지로 유람지인 두릉이 비경을 지닌 은거지로 묘사되고 있다.

오태운, 『斗江勝會[두강에서의 좋은 모임]』 제4수

帆過揚州到廣州	배로 楊州를 거쳐 廣州에 이르니
江樓一笑失千憂	강가 누대에서 한바탕 웃으며 온갖 시름 잊네.
相携皓髮商顏老	머리 흰 商山の 늙은이들 손을 맞잡고
共泛滄波菴雲舟	푸른 물결에 菴雲의 배를 함께 띄운다오.
睡起山窓松籟發	山窓에서 잠 깨어 솔 숲 소리 듣고
醉歸沙岸柳烟浮	취해 모래톱에 돌아오니 버들엔 안개 끼었네.
興來尙有豪狂氣	흥 일면 여전히 호탕한 기운 있어
凌破長風萬里流	바람 타고 만 리 강물을 깨치려 하네.

오태운은 秦漢 교체기에 상안산에 은거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商山四皓에 자신들 네 사람을 비유하고, 당나라의 은사 張志和가 顏眞卿에게 “나의 소원은 배를 집 삼아 물 위에 살면서 菴溪와 靄溪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네.(願爲浮家泛宅, 往來菴靄間)”라고 말했다는 浮家泛宅의 고사를 가져와 자신들의 유람을 그에 견주었다.

장지화의 부가범택은 이전 시기 두릉에 거처했던 정약용 또한 꿈꾸었던 일이다. 그는 장지화가 만년에 물러나 ‘煙波釣叟’라고 자호하며 부가범

택한 일을 흠모하여 ‘菴上煙波釣叟之家’라는 榜을 만들어 배에 달고 은거하고자 하였다.³⁸⁾ 물론 이 시기 정약용은 정조의 지우를 입고 있던 터라 내각으로 소환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해배 이후 손주의 혼사로 배를 꾸며 춘천을 오가는 길에 이 소원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³⁹⁾

정약용과 같은 선배 문인의 전철을 따라 부가범택의 은거를 꿈꾸기에 두릉은 알맞은 장소였다. 두 줄기의 티 없이 맑은 강물이 만나 고운 모래밭이 펼쳐지고, 물길을 따라 가다보면 고즈넉한 인가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 두릉을 두고 이들은 姮娥와 西施를 떠올리고, 武陵桃源을 노래했다.⁴⁰⁾

그러나 흥석도 일행이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은거만을 꿈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오태운 시의 마지막 두 구는 그의 호기로운 기백을 담고 있다. 南朝 宋의 宗愨이 소년 시절에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장풍을 타고만 리의 파도를 깨부수고 싶다.(願乘長風破萬里浪)”라고 했는데, 과연 후에 振武將軍이 되어 공훈을 세웠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이 말은 기회를 얻어 자신의 큰 포부를 한 번 펼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38) 정약용, 『與猶堂全書』 권14, 「菴上煙波釣叟之家記」. “余欲以一金買一舟, 舟中置漁網四五張, 釣竹一二竿, 備鼎鑪盤盪諸凡養生之器, 爲屋一間而炕之. 令二兒守家, 挈老妻穉子及僮一人, 浮家汎宅, 往來於鍾山-菴水之間, 今日漁于粵溪之淵, 明日釣于石湖之曲, 又明日漁于門巖之瀨. 風餐水宿, 汎汎若波中之鳧, 時爲短歌小詩, 以自抒其崎嶇歷落之情, 是吾願也.”

39) 정약용, 『與猶堂全書』 권14, 「汕行日記」. “別求漁艇寬者, 裝之如屋, 扁其楣曰山水綠齋, 余所書也. 左右柱曰張志和菴雪之趣, 倪元鎮湖泖之情, 申綽承旨之隸書也.”

40) 홍석모, 「挈小舟 至鈔鑿潭北壁下 沿洄少頃」. “鈔鑿潭上出孤峰, 北壁嶽峨似石鐘. 藍嶼斜分水頭兩, 祇林遙指翠微重. 嫩沙淡淡姮娥影, 明鏡娟娟西子容. 不有小舟乘興去, 風窓那起午眠慵.”; 「練帶亭」. “峽分南北水東西, 練帶澄江淨不迷. 漁艇自橫靈壁岸, 人家如在武陵溪. 湧來洲月驚鷗夢, 落盡林花惜鳥啼. 棋罷晴窓詩伴至, 輕筇不厭小壺携.”

오태운, 『斗江勝會[두강에서의 좋은 모임]』 제7수

滿壑煙雲抵屋書	골짜크 가득한 안개가 書屋에 내려앉으니
斗陵江上草玄居	두릉의 강가에 太玄經 지은 거처 있네.
爭如高士閒鷗鷺	어찌 한가로이 갈매기 꿈꾸는 高士에 비하랴
堪愧腐儒老蠹魚	늙은 좀벌레 같은 腐儒의 삶이라 부끄럽다오.
海內文章名不負	해내의 문장이란 명성에는 어긋남이 없는데
聖間簪紱計全疎	성인의 학문, 벼슬살이엔 계획 너무도 서툴구나.
殘年願遂分山約	남은 생애는 산 나누어 살자는 약속 이루어
栽竹蒔花共理鋤	대 심고 꽃모종하며 함께 호미질하고저.

오태운이 위 작품에 다시 첨운하여 지은 두 번째 시이다. 이 시 또한 전편에서 두릉에서 벗과 함께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는 松亭을 거쳐 마재 앞의 菴溪에 배를 띄우고 노닐며 지은 것이다. 따라서 首聯에서 말한 태현경을 지은 거처는 초계 앞 마재에 있던 박종유의 거처를 가리킨 듯하다. 오태운은 이곳에서 은거하는 벗을 고결한 선비로, 자기 자신은 썩은 선비, 늙은 좀벌레로 표현했다. 이는 당시 그의 삶과 연관 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오태운이 음보로 양근군수를 지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생부인 吳彦誼가 1825년 여주의 청심루를 구경하다가 술에 취하여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쓴 편액을 부수어 鍾城에 유배되었는데,⁴¹⁾ 오태운은 부친을 위해 상언하여 1827년 해배되도록 하였다.⁴²⁾ 부친이 해배되긴 했지만, 이후 오태운의 관직 진출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1831년 그는 寢郎에 의망되었으나 부친의 일로 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순조가 그 죄벌을 아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여 윤허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그를 의망한 이조판서 李勉昇이 遞差되었고 결국 오태운은 參奉에 이르지 못했다.⁴³⁾ 두릉에 이르러 성인의 학문이

41) 『純祖實錄』 25년(1825) 7월 14일조.

42) 『순조실록』 27년(1827) 3월 18일조.

나 벼슬살이에 구애받지 않고 한가로운 삶을 사는 벗을 보니, 세상을 향한 포부를 가졌으나 쓰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고한 은거를 택하지도 못하는 자신이 씩은 선비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은거를 노래하면서도 유자로서의 정치적 포부를 저버릴 수 없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 두릉과 제천에서 은거했던 박종유나 홍선모는 어떠했는가?

박종유, 『斗江勝會[두강에서의 좋은 모임]』 제5수⁴⁴)

閉戶何曾爲著書	문 걸어 닫음이 어찌 저술을 위함이라
邱山性癖愛間居	산수 좋아하는 癖 있어 間居를 즐기더라.
十年種木園供果	10년 동안 나무 심으니 동산에 과일 나고
百頃儲波池有魚	백경의 물 끌어 모아 못에 물고기 사네.
偶入城闌情不忘	이따금 도성에 들어가도 정을 못 잊어
携□故舊計非疎	옛 벗과 함께 가려고 계획하는 일 적지 않네.
衰翁經濟無長策	노쇠한 늙은이는 경제제민엔 좋은 계책 없고
只在風蔬及雨鋤	그저 비바람 맞고 있을 밭일만 생각한다오.

위의 시에서 박종유는 陶潛의 「歸田園居」를 가져와 자신의 성정이 산림을 좋아하고 한거를 즐긴다고 하였다. 시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은 어찌다 도성에 들어가도 두릉을 그리워하고, 두릉의 밭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는 은자의 삶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 말구에서는 경제제민의 계책을 경륜해보지도 못하고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애석함이 느껴진다. 여기에서 앞 구절을 새롭게 해석해볼 여지가 생긴다. 문인들이 경화세족에게 의탁하여 출사를 꾀했던 당시의 세태를 생각하면 그가 이따금 도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치적 포부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출사를 위해 도성을 오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니 도성에서는 더욱 집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43) 『순조실록』 31년(1831) 2월 10일조 ; 2월 17일조.

44) 제6구의 □는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홍선모, 「斗江勝會[두강에서의 좋은 모임]」 제2수

客路無端滯廣州	끝없는 나그네길 중 廣州에서 머무니
常情日日足爲憂	인간의 常情이 날마다 근심을 이루네.
天連卅色西江雨	풀빛 잇닿은 하늘에선 西江에 비 뿌리고
岸打波聲北壁舟	파도가 언덕에 부딪치는데 북벽에 배를 띄우네.
忽起看山青滴滴	문득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이슬 방울졌고
還來把酒白浮浮	돌아와 잔을 드니 흰 술 빛이 찰랑이는구나.
從吾放縱仍歡樂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 더욱 즐거워라
此會如今第一流	이 모임이 지금의 第一流라 하리.

홍선모의 시에도 두릉의 아름다움과 유람의 즐거움이 보이지만, 한편으로 ‘끝없는 나그네길[客路無端]’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서려있다. 그의 나그네 의식은 다른 시에도 보이는데,⁴⁵⁾ 이것은 단순히 거처가 있던 제천을 떠나서 느꼈던 감정만은 아닌 듯하다. 「松亭」 시에서는 “외로운 그대 심지 곧은 줄을 누가 알아주랴, 여름날 맑은 그늘도 너에 비할 것 없구나. (古孤誰識中心直, 夏日清陰亦不羣)”라고 정자 앞의 노송을 노래했는데, 이 또한 자신의 외로운 심사를 소나무에 의탁한 표현이다.

한가로운 은거 속에서 홍선모가 즐겁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현실적 처지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는 박종유와 마찬가지로 평생 포의로 지냈는데, 정약용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뜻을 지니고 서울에서 4~5년간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찾았으나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처자도 없이 제천으로 들어가 홀로 옥호산장을 짓고 은거했다. 정약용은 이를 보고 명망 있는 집안들이 모두 영락하여 무수한 준재들이 목정밭에서 썩고 있다며 세태를 탄식했다.⁴⁶⁾

45) 홍선모, 「練帶亭」 제4수. “巖畔落花空渚月, 承舟時復客壺携.”

46) 정약용, 「送洪逸人歸玉壺山莊詩并序」. “洪聖三卓犖有志, 傲居京輦四五年, 度無以力取, 恣游山水間. 於堤川得一丘, 曰玉壺山莊. 將挈能剛木焚菑, 斯無妻子隱焉. …… 余憐而壯之, 爲贈一詩. 義林西畔玉壺臺, 說是洪厓羽花來. 翠壁紅泉聊自飽, 水畀火耨不求財. 煙江圖見王卿志, 盤谷歌令李愿回. 眼看故家零落盡, 俊才無數

은거를 표방하면서도 출사의 뜻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은 이들의 현실적 처지와 함께 이곳이 ‘두릉’이라는 점도 작용했던 듯하다. 홍석모는 練帶亭을 읊은 시에서 “고깃배는 靈壁의 기슭에 홀로 비껴있고, 인가는 武陵의 시냇가에 있는 듯하네.(漁艇自橫靈壁岸, 人家如在武陵溪)”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두릉을 영벽에 비유한 점이 주목된다. 영벽은 소식의 「靈壁張氏園亭記」에 보이는데, 이 글에 따르면 영벽은 汴水와 泗水 사이에 있어 수레와 배가 모이는 곳이라 자손들이 출사하려고 하면 쉽게 조정에 닿을 수 있고, 은둔하고자 하면 산림을 바라보며 그 뜻을 기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는 북한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두릉과 매우 흡사하다. 실제 이 시기 두릉에 은거했던 이들은 자손들의 출사를 생각하며 근교에 자리를 잡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릉에 거처하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도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내면서 文華의 안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⁷⁾ 서유구 또한 이곳 두릉이 京師와 거리가 가깝고 남북의 강이 모이는 지점에 있어 배로 쉽게 한양에 이를 수 있으니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거처 삼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⁴⁸⁾ 두릉은 그 아름다움으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훗날 자손들의 출사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문인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隱蒿萊.”

- 47)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18, 「示二兒家誠」. “中國文明成俗, 雖窮鄉遐陬, 不害其成聖成賢. 我邦不然, 離都門數十里, 已是鴻荒世界, 矧遐遠哉? 凡士大夫家法, 方翱翔雲路, 則亟宜僦屋山阿, 不失處士之本色, 若仕宦壁絕, 則亟宜託栖京輦, 不落文華之眼目. 吾今名在罪籍, 使汝曹姑遯田廬, 至於日後之計, 唯王城十里之內, 可以爰處, 若家力衰落, 不能深入, 須暫止近郊, 蒔果種菜, 以圖生活, 待資賄稍贍, 便入市朝之中, 未爲晚也.”
- 48) 서유구, 『楓石全集』, 「與季弟士忱書」. “斗陵距京師不過八十里, 而處南北江交會之間. 公私舟楫, 朝發而夕至京, 吾之爲子孫計者至矣.”

IV. 맺음말

『두강승유첩』은 1845년 홍석모, 박종유, 오태운, 홍선모 네 사람의 두릉 유람시를 행초로 필사한 시첩이다. 문인 화가였던 이견필이 이들 네 사람의 두릉 유람의 정경을 2폭의 그림으로 남겼고, 이 그림과 유람시가 함께 엮여 시화첩으로 전한다.

『두강승유첩』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두강승유첩』은 19세기의 문인들에게 두릉이 남다른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한양→두릉→한양으로 이어지는 유람의 전체 여정 가운데 두릉에서 지은 작품을 중점적으로 필사하고, 여기에 두릉의 정경을 그린 그림을 덧붙여 완성했다는 점에서 이 시첩은 두릉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시첩에 실린 작품을 통해 이 시기 문인들이 정약용·서유구 등 두릉에 거쳐했던 선배 문인들에 대한 敬慕의 마음을 지녔으며, 이것이 두릉 유람을 견인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두릉이 한양의 근교지로서 은거의 한적한 삶을 바라면서도 출사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못한 문인들의 은거, 유람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시첩을 통해 19세기 두릉 지역의 누정과 별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누정과 별서는 주로 일시적인 거주지로 조성되지만, 이것이 후대에 전해지고 유람지로 선택되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향유되기에 장소적 중요성을 지닌다. 기존에 京江의 주요 누정과 별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되었으나,⁴⁹⁾ 두릉을 포함한 북한강 지역의 누정과 별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두강승유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 19세기 두릉 지역에는 송정, 연대정, 석림, 백운루 터 등이 있었다. 팔당댐 건설 이후 지형의 변화로 수몰되거나 사라진 공간들이지만, 19세기 당대의 모습이 작품에 남아있어 주목된다.

49) 이와 관련해 이종복의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여전히 19세기 문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인, 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분화가 심화되고 경화사족이 비대해져 명문 출신이 아니면 관직을 얻기 어려웠던 19세기의 정치 상황 아래, 근교에 은거하며 출사의 뜻을 버리지 않았던 지방 문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유람시를 남긴 홍석모, 당대 문인들 사이에 교유의 폭이 넓었던 박종유, 그림을 남긴 이견필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자료의 소개와 전체적인 개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후 이 시기 문인과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들의 고유나 작품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고구하고 19세기 문학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參考 文獻〉

1. 원전 자료

- 金允植, 『雲養集』(한국문집총간 328집)
柳疇睦, 『溪堂集』(한국문집총간 313집)
李學奎, 『洛下生集』(한국문집총간 290집)
徐有榘, 『楓石全集』(한국문집총간 288집)
蘇軾, 『東坡後集』(사고전서본)
蘇軾, 『蘇文忠公全集』(사고전서본)
申 綽, 『石泉遺集』, 『朝鮮學報』 제29~34집, 1965.
丁若鏞, 「送洪逸人歸玉壺山莊詩并序」(제24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출품본)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286집)
崔 琳, 『畏窩集』(한국문집총간 속 116집)
洪錫謨 外, 『斗江勝遊帖』(실학박물관 소장본)
洪錫謨, 『陶厓詩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洪翰周, 『海翁藁』(한국문집총간 306집)
『海州吳氏大同譜』, 해주오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1.
『全州李氏 德泉君派譜』, 전주이씨 덕천군파종회, 2003.
『純祖實錄』

2. 연구 논저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
김상엽, 『소치 허련』, 돌베개, 2008.
김은정, 「신익성의 동회 별서」,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김지연 외,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김지영, 「조선 후기 斗陵 일대에 대한 공간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화회, 2017.

- _____, 『정학연 시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오세창, 『근역서화징』, 학자원, 2015.
- 유복렬, 『한국회화대관』, 문교원, 1969.
- 이관성, 「도에 홍석모 문학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남호편·동호편·서호편, 경인문화사, 2016.
-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1~4, 휴머니스트, 2006.

Abstract

*A study on 『Dugangseungyuchoeb(斗江勝遊帖)』, album of poems for sightseeing
Dureung(斗陵) in the 19th century*

Kim Jiyoung*

This research introduced and investigated 『Dugangseungyuchoeb』, written by Hong Seokmo, Park Jongyu, O Taewoon, and Hong Seonmo, the literary persons of the 19th century, after traveling Dureung, and studied the content.

This poem collection book includes 15 title 55 pcs of sightseeing poets written after traveling to Dureung in 1845 and 2 pcs of Lee Geonpil's 『Dugangseungyudo』, which described the landscape of Dureung sightseeing. The four persons who traveled together were in the same political party, Soron(少論), and had social intercourse earlier on. Dureung was a place where Park Jongyu resided, and their senior literary persons as Jeong Yakyong-Seo Yugu, whom the literary persons of that period admired(敬慕), settled down, so the place was naturally selected as a travel site. There, literary painter as well as calligrapher Lee Geonpil left a painting of sightseeing to Saradam(鈔鑾潭) and Songjeong(松亭) and attached to their sightseeing poems, his simple stroke includes the real scenery(實景) of Dureung, following the trend of Namjongmuninhwa(南宗文人畫) of the 19th century.

Sightseeing poems described several famous sights of Dureung during that time. For example, the poems included Songjeong, owned by Park Jongyu family after Jeong Yagyong family, Youndaejeong(練帶亭) in front of Saradam, Seokrim(石林), where the manor of Deoksu Lee family(德水李氏) was located, and Baegwoonru(白雲樓) site, where Sin Ikseong's Donghoi(東淮) villa was located. The four persons sang their retirement life in beautiful Dureung, on the other hand, revealed sorriness about their unfulfilled dream of government service. In respect of this point, it is remarkable that Dureung was a popular suburb area for the literary persons of that period, who dreamed of both retirement life and government service, where they could easily reach the capital city by boat.

* Researcher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elikusa@aks.ac.kr

【Key words】 Dureung(斗陵), Dugangseungyucheob(斗江勝遊帖), the 19th century, Sightseeing(遊覽), Hong Seokmo, Park Jongyu, Lee Geonpil

투고일 : 5월 18일, 심사완료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